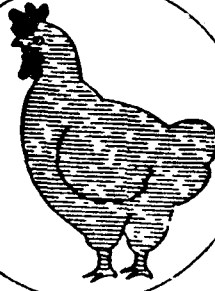


육계시장



단위 : 원 / kg

월일	지역 구분	서울 지역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대전
		대 닭 (하이)	중 닭 (세미)	노 계	대 닭 (하이)	대 닭 (하이)	대 닭 (하이)	대 닭 (하이)	대 닭 (하이)
8월25일		810	750	400	750	720	800	800	800
27일		770	730	400	750	720	800	800	750
29일		730	720	380	750	720	800	800	750
31일		710	700	380	720	700	800	800	750
9월 1일		700	680	380	720	700	800	750	750
3일		630	600	380	720	670	650	750	750
4일		580	570	350	720	660	650	750	600
7일		530	510	350	650	620	630	700	600
10일		500	500	350	570	580	630	700	570
78년 8월		731	675	461	773	790	722	755	700
9월		668	644	526	743	786	685	736	704
10월		654	687	476	676	744	635	690	672
11월		830	835	487	862	897	810	817	833
12월		634	630	475	683	705	633	583	656
79년 1월		523	516	450	602	654	588	633	586
2월		444	418	379	509	534	485	549	477
3월		486	426	340	544	574	507	494	511
4월		484	430	344	560	581	550	569	523
5월		616	566	338	666	671	676	678	650
6월		625	588	350	652	636	620	672	640
7월		688	662	377	711	720	683	723	704
8월		767	739	405	736	712	760	773	769

월초에 강세, 중순이후 저조

비교적 호경기를 보이던 여름경기가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8월 25일이 지나면서 10일만에 약 250~300원이 폭락하는 좀처럼 볼수없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기후가 바뀌면서 급작스런 수요감퇴로 상인들의 구매물량이 감소하자 생산자들은 급격한 하락을 예상하고 덤핑을 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세가 계속 강세를 펼것으로 예상하고 출하를 억제했던 일부 생산자의 무모한 전망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돌론 성수기를 지나면서 가격이 하락될 것은 당연하겠지만 생산자들의 성급함이 가격폭락을 급속히 재촉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하겠다.

또한 도회지와 농촌을 가리지않고 값싸게 유통되었던 돼지고기가 닭고기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9월 한달의 육제시세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1월, 6월, 7월 그리고 8월의 병아리 입추량이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작년 8월 대비 금년 8월은 22%의 입추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10월의 시장은 전혀 낙관할 수 없다 하겠다.

금년 추석을 겨냥한 물량이 적지 않으나 추석을 전후로 약 열흘간의 연휴가 겹쳐 이 물량이 일단은 소모된다 하더라도 수요에 비해 시장출하예정량은 10월의 관광철을 감안한다해도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년초의 불황과 연결된 78년도 3월부터 5월까지의 육용종계입식수수는 매달 19만~20만수 였는데 금년 3월의 육용종계입식수수가 약 25만수를 나타내 10월부터는 병아리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화장과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생산조절의 필요성이 절실히 진다.

전용종(하이) 가격 월별 추세(서울지역 1976~79년) (단위: 원/kg)

